

「晉高句驪歸義侯」金印

박대재*

최근 중국 홍콩의 嘉德 경매회사가 2025년 4월 초에 고구려 인장을 경매에 출품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¹⁾ 인터넷에 먼저 공개된 인장의 사진에는 ‘晉高句驪歸義侯’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쯔이 고구려에 수여한 官印으로 보인다.

올해 3월 20일에 작성된 소개 자료에는 인장 사진과 함께 「“晉高句驪歸義侯”金印述略」이란 제목의 글²⁾이 게재되었다. 이에 따르면, 인장의 손잡이는 정교한 말 모양[馬紐]으로 조각되었으며 88g의 순금으로 제작되었다. 전체 높이는 2.8cm, 인장 받침대 높이는 0.6cm, 印面 크기는 2.4×2.3cm다. 인면의 필획은 고르고 단정하고 선의 시작과 끝이 각지게 처리되어 청명하고 정교하여 西晉 시기 인장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준다고 한다.

[그림 1] 「晉高句驪歸義侯」金印



현재까지 확인된 ‘晉高句驪’ 관련 인장은 『東北古印鈎沈』³⁾에 소개된 1점과 『秦漢南北朝官印徵存』⁴⁾에 수록된 5점을 포함해 총 6점으로 모두 ‘率善’명 계통이다.

*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1) <https://www.cguardian.com.hk/tc/auction/auction-details.php?id=399422>

2) 저자는 段凱(中國美術學院 漢字文化研究所 副研究員).

3) 金毓黻, 1943, 『東北古印鈎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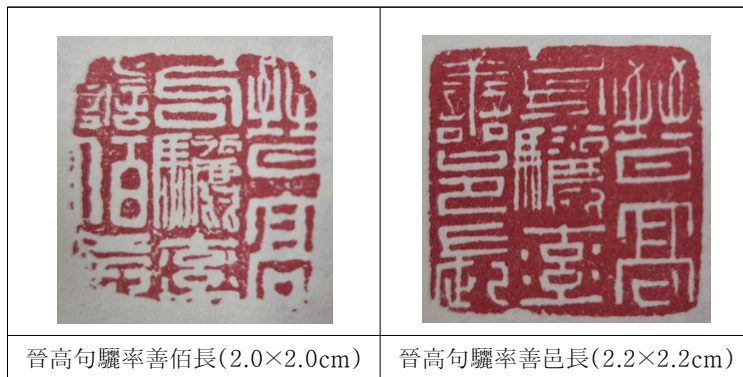
4) 羅福頤·故宮博物院研究室璽印組編, 1987, 『秦漢南北朝官印徵存』, 文物出版社, p.354.

[표 1] ‘晉高句驪率善’명 인장

명문	소장처	비고
晉高句驪率善佰長		1912년 집안 환도산성 출토(김육불 소개)
晉高句驪率善邑長	北京 故宮博物院	집안 출토
晉高句驪率善邑長		
晉高句驪率善任長		
晉高句驪率善任長	天津藝術博物館	
晉高句驪率善佰長	中國歷史博物館	

이 중 중국 길림성 집안에서 출토된 것은 2점으로, 1912년 환도산성 출토된 「晉高句驪率善佰長」銅印과 현재 북경 고궁박물관에 소장된 「晉高句驪率善邑長」銅印이다. 두 관인은 대체로 318~419년 사이에 東쪽이 고구려에 준 것으로 추정된다.⁵⁾

[그림 2] 집안 출토 ‘晉高句驪率善’명 銅印



‘술선’명 관인을 고구려에 수여한 주체에 대해 서진이나 동진이나를 둘러싸고 논의가 나뉘어 있다. 그런데 서진과 동진의 관계를 기록한 『晉書』 동이전에 고구려의 존재가 보이지 않으며, 고구려가 고국원왕 6년(336)과 13년(343)에 동진에 사신을 파견하였고 장수왕 원년(413)에는 동진으로부터 ‘고구려왕’으로 책봉을 받았다는 『진서』와 『삼국사기』의 기록을 참고하면 고구려에 ‘술선’명 관인을 준 주체는 동진일 가능성이 높다.

3세기 후반부터 흉노와 선비 등 북방 유목민족인 5胡의 남하와 자립이 시작되면서, 진(서진)은 결국 316년에 멸망하고 司馬氏 일족은 강남으로 건너가 동진(317-420)을 다시 세웠다. 서진(265-316) 멸망 후 화북 지역은 이른바 5호 16국이 흥망을 거듭하며 北魏가 화북을 통일한 439년까지 분열과 이동의 대혼란기를 겪었다. 수세에 몰려있던 강남의 동진은 외교적 타개책으로 고구려나 북방 유목민족을 회유 내지 포섭하기 위해 다양한 관인을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5) 張英·任萬舉·羅顯清, 1992, 『吉林出土古代官印』, 文物出版社, p.156.

漢·魏 이래로 중원 정권은 주변 이민족 수장에게 책봉과 함께 관인을 수여하는 외교적 전통이 있었다. 『漢書』西域傳에 “모두 50국으로, 譯長·城長·君·監·吏·大祿·百長·千長·都尉·且渠·當戶·將·相으로부터 侯·王에 이르기까지 漢의 印綬를 찬 자가 모두 376명이었다”라 하고, 또 『삼국지』동이전(韓)에도 “景初(237-239) 중에 明帝가 대방태수 劉昕과 낙랑태수 鮮于嗣를 몰래 보내 바다를 건너 2郡을 평정하고 여러 한국 臣智에게 邑君의 印綬를 더해 주고 그 다음 邑長에게 주었다. 그 풍속에 衣幘을 좋아해 下戶가 郡에 조알할 때 모두 衣幘을 빌려 입어 인수와 의책을 스스로 착용하는 자가 천여 명이였다”라고 하였다.

실제로 중국 각지에서 출토된 인장들은 이 외교적 전통이 썩까지 지속되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青海省大通縣에서 출토된 「漢匈奴歸義親漢長」 인장, 新疆維吾爾族自治區阿克蘇 지역에서 출토된 「漢歸義羌長」 인장, 현재 상해박물관에 소장된 「魏率善羌邑長」 인장, 甘肅省西和縣에서 출토된 「晉歸義氏王」과 「晉歸義羌侯」 인장, 內蒙古自治區涼城縣에서 출토된 「晉鮮卑歸義侯」, 「晉烏丸歸義侯」 및 「晉鮮卑率善中郎將」 인장 등이 대표적이다.

고대 중국이 이민족에게 수여한 관인 제도는 대체로 3등급으로 나뉜다. 3등급의 관인 체계는 이미 후한 시기에 대략 마련되었으며, 魏·晉 시기에 이르러 國王印-歸義王侯印-率善邑君長印의 3등급으로 확립되었다.⁶⁾ 최고 등급은 주변국 군주에게 수여된 ‘國王’ 인장이며, 그 다음은 이민족 내부 지배층에게 주어진 歸義王·歸義侯 등의 ‘歸義’ 계열 인장이다. 그 아래 등급으로는 率善邑君, 率善邑長, 率善任長, 率善伯長, 率善中郎將 등 비교적 하위 수장들에게 수여된 ‘率善’ 계열 인장이다.⁷⁾

『삼국지』동이전에는 魏率善邑君·歸義侯·中郎將·都尉·伯長 등이 삼한의 관명으로 나오는데, 이는 삼한의 거수 칭호가 5단계(臣智, 險側, 樊濊, 殺奚, 邑借)로 구분된 것과 연결되기도 한다.⁸⁾ 관인 등급에서는 귀의후가 술선읍군보다 상위이므로, 삼한의 거수 중 가장 큰 자인 신지가 귀의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 ‘晉歸義侯’명 金印



지금까지 확인된 ‘晉高句驪’ 인장에서는 3등급에 해당하는 ‘率善’명 인장만 실물이 전해졌

6) 秋山進午, 2010, 「魏晉外夷官印制度の復元と『魏志倭人傳』印」, 『史林』 93-4, pp.75~79.
7) 이승호, 2012, 「3세기 후반 「晉高句麗率善」印과 高句麗의 對西晉 관계」, 『한국고대사연구』67, p.307.
8) 박대재, 2024, 「변진사회의 분화와 구야국의 성장」, 『한국 초기사 연구-고대의 조선과 한국-』, 세창출판사, p.519.

다. 이번에 소개된 「晉高句驪歸義侯」金印을 통해 2등급인 ‘歸義侯’명 인장의 존재가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새롭게 확인된 「晉高句驪歸義侯」金印은 1956년 내몽고자치구 양성현에서 출토된 「晉鮮卑歸義侯」 및 「晉烏丸歸義侯」金印과 비교할 때, 인면 크기에서 0.1~0.2cm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전체적인 형태는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번 경매를 주최하는 홍콩 嘉德은 1993년 5월에 설립된 중국 문화재 및 예술품 전문 종합 경매회사로, 매년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대규모 경매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에 출품된 「晉高句驪歸義侯」金印의 경매일은 2025년 4월 6일이며, 추정가는 15만 3,800~28만 2,100달러(HKD : 120만~220만)로 책정되었다.

다만 金印의 수집 경위나 진위 여부는 현재로서는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다. 향후 중국에서 관련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중국 일각에서는 인장의 존재를 고구려에 대한 진의 지배를 보여주는 실물 자료로 확대해석해 보지만, 책봉과 인장의 분급은 동아시아의 오래된 외교적 형식으로 실제 국제 정세와 상당한 거리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4세기 이후 진은 북방의 5호에 의해 판도가 크게 위축된 상태에 있었으며, 대외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선비나 오환 및 고구려의 수장에게 금인을 나눠준 것이다.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를 객관적으로 이해한 위에서 「晉高句驪歸義侯」인장의 역사적 성격을 해석해야 할 것이다.